

## 내재적 실재론에 있어서의 칸트적 요소

김 영 정

정진 선생님의 회갑을 맞아 칸트 철학이 현대철학에 미치고 있는 영향의 한 편린을 더듬어 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일 것이다. 독일 관념론 철학의 봉우리인 칸트 철학이 현대 영미 철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현대 영미철학계를 대표할 수 있는 철학자들 중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인물들로는 도날드 데이빈슨, 존 롤즈, 힐러리 퍼트남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이 칸트의 선행 철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의 한 단면을 살펴보겠다.

『이성, 진리 그리고 역사』라는 책에서 퍼트남은 실제 인간들의 다양한 관점들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실재론은 신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근거로 형이상학적 실재론을 비판하고 내재적 실재론을 옹호한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에 따르면 세계는 정신 독립적인 대상들의 어떤 고정된 총체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진리는 단어 혹은 사고기호(thought-sign)와 정신 독립적인 사물간의 대응관계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실재론과 대조적으로 내재적 실재론은 정신 독립적인 대상도 진리 대응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재적 실재론은 대상들이 우리의 개념적 틀과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란 일종의 이상화된 합리적 수용 가능성 - 이상적 정합성이라고 주장한다. 퍼트남은 형이상학적 실재론을 비판하고 자신의 내재적 실재론을 옹호하는 논변을 어떻게 지시작용이 가능한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초점을 맞춰 전개시킨다. 앞서 밝힌대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퍼트남의 내재적 지시이론과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의 지시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을 칸트의 선행철학과 대비시켜 명료화하고 어떻게 그의 지시이론이 그의 진리이론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고려했다. 퍼트남의 지시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칸트의 선행적 탐구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 1. 앎에 대한 선행적 도식

퍼트남은 그의 내재적 실재론을 전개함에 있어 칸트의 지식에 대한 선행적 접근을 그대로 수용한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하는 선행적 질문을 던진다. 칸트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전제조건들의 탐구가 경험적인 탐구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선행적이라 불렀다. 지식의 전제조건들을 만족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적 지식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전제조건들에 관한 선행적 지식은 지

식의 전제조건들을 만족함에 없이 획득된다. 지식의 전제조건들에 관한 그러한 상위 지식은 경험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칸트는 그것을 선험적이라 불렀다. 결국 선험적 탐구란 칸트에 있어 전제조건들에 대한 상위 탐구를 뜻한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다음의 두 근본적인 원천으로부터 나온다. 그 첫째가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지각의 수용성)이고 둘째가 이러한 표상들을 통해 대상들을 아는 능력(개념의 자발성)이다. 전자를 통해서 대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후자를 통해서 대상이 이해되어진다. 또 모든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정신의 선험적 틀들(시간과 공간 그리고 12개 범주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현상적인 세계에 국한된다. 그러나 칸트는 우리의 지식에 어떠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신과 독립된 물자체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칸트에 있어서 이것은 진정으로 이성의 요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자체 세계의 개념은 분명한 개념이다기 보다는 사고의 한계개념이다. 요약하자면, 지식의 선험적 도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 자체로서 알려지지 않고 또 알려질 수 없는 어떤 것이 정신 독립적인 물자체의 세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둘째로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직관 형식들(시간과 공간)하에서 우리의 지각을 통해 표상들을 받아들인다. 셋째로, 우리의 오성이 우리의 실천적인 범주들에 맞추어 주어진 표상들에 관한 개념들을 형성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조건들에 맞추어 형성된 개념들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경험적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퍼트남은 이러한 개념들을 완전히 무르익은(Full-blown) 개념들이라고 부른다.

칸트의 선험적 앎의 도식을 자신의 내재적 실재론에 응용한 퍼트남은 내재적 실재론이 우리의 지식에 물자체 대상으로부터 온 경험적인 유입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우리의 개념들에 의해 궁극적으로 모양지워지지 않은 어떠한 경험적 유입물의 존재도 부정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선험철학의 현대판으로서의 내재적 실재론에 따르면, “‘대상들’은 발견된 만큼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와 독립적인 요인 즉 경험의 객관적인 요소의 산물인 만큼 우리의 개념적 고안의 산물이다.”<sup>1)</sup> 보다 강하게 표현해 ‘대상들’은 우리의 개념적 틀과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지식은 경험적 유입물과 개념적 틀에 따른 우리의 개념화 작용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달리 말해, 경험적 유입물과 우리의 개념화 작용의 두 전제조건들이 만족되어질 때 우리는 지식을 갖을 수 있다.

## II. 퍼트남의 내재적 지시이론 I

퍼트남의 지시에 대한 탐구는 위에서 살펴본 지식의 탐구와 마찬가지로 지시의 전제조건들에 대한 선험적 탐구이다. 퍼트남은 현대 철학자들이 애호하는 언어적 분석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칸트의 선험적 방식 즉 선천적(a priori) 추론을 통한 지시의 전제조건들에 대한 탐구 방식을 채택한다. 퍼트남은 ‘지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들이 만

주 1) Reason, Truth and History, p.54.

족되어야만 하는가?’를 묻는다. 그는 말한다: “기호들은 어떻게 이 기호들이 도입되었으며,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본유적으로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기호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의 사용자들에 의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그 사용자들의 개념적 틀 내에서 특정한 대상들을 지시할 수 있다.”<sup>2)</sup> 퍼트남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방대하고 복잡한 표상 체계일지라도 그것이 음성적이든 시각적이든 어떻게 표상체계가 야기되었으며 화자나 사유자의 개념적 틀이 무엇인가에 독립하여 그것이 표상하고 있는 대상과 본유적이고 불박이적인 마술적 연결을 가지고 있지 않다.”<sup>3)</sup>

위의 귀절들은 지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호들이나 표상들이 오로지 어떤 특정한 방식에 의해 도입되었거나 야기되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거나 개념화될 때에만 그 기호들이나 표상들은 특정한 대상들을 지시한다. 이제 우리는 칸트의 선험적 지식이론과 퍼트남의 내재적 지식이론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한 동전의 두 양면이다. 지식의 선험적 도식에 따라 형성된 대상들에 대한 완전히 무르익은 개념들을 가질 때, 우리는 기호들이나 표상들으로써 대상들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퍼트남의 지식이론에 따르면, 경험적 유입물과 우리의 개념화 작용이라는 두 전제조건들이 만족될 때, 우리는 지식을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대상들로부터의 경험적 유입물과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른 개념화 작용이라는 두 전제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즉 우리의 정신적 표상들이 경험적 유입물들에 의해 야기되고 우리의 개념화에 의해 완전히 무르익은 개념들을 형성할 때, 그 표상들은 특정한 대상들을 지시할 수 있다. 퍼트남은 대상들로부터 경험적 유입물을 얻게 되는 특정한 방식을 대상들과의 인과적 상호작용이라고 기술한다. 그는 “만일 사람들이 나무와 같은 사물들과의 인과관계(직접적 인과관계)나 그것을 통해 사물들이 묘사될 수 있는 어떤 것과의 인과관계(간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물들을 지시할 수 없다”<sup>4)</sup>고 말한다. 그리고 퍼트남은 지시의 전제조건으로서 우리의 개념화 작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상들’은 개념적 틀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혹은 또 다른 기술의 틀을 도입할 때 세계를 대상들로 쪼갬다. 대상들과 기호들이 동시에 기술의 틀에 내재적이므로, 무엇이 무엇과 조응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sup>5)</sup> 따라서 지시의 전제조건들은 경험적 유입물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과적 상호작용과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른 우리의 개념화 작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칸트의 귀절을 빌자면, “내용(경험적 유입물)이 없는 사고(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지각(경험적 유입물)은 맹목이다.”<sup>6)</sup>

이제 우리는 “위의 두 전제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함이 없이는 외부적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불가능할까?”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봉착한다. 지시에 있어서 위의 두 조건

주 2) 같은 책 p.52.

3) 같은 책 p.5.

4) 같은 책 pp.16-17.

5) 같은 책 p.52.

6) *Kritik der Reinen Vernunft*, s.A51.

김영정

의 필요성을 보이기 위해 퍼트남은 순수의도이론, 닭은이론 인과적 고리이론 등과 같은 마술적 지시이론들을 비판한다. 현상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순수의도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퍼트남은 경험적 유입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상들과의 인과적 상호작용이 필요조건임을 보이고,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닭은이론과 인과적 고리이론을 비판함으로써 그는 우리의 개념화 작용이 또 다른 필요조건임을 보인다.

### 3. 순수의도 지시이론

퍼트남은 지향성과 같은 정신의 신비한 힘들을 단순히 설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거리도 실질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에서 지향성이 정신으로 하여금 지시를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퍼트남은 훗설의 괄호화 장치를 채택하여 의도들을 순수의도들과 비순수의도들로 구별한다. 괄호화 장치는 어떤 사고에 의해 지시되어지는 실제 사물들의 존재나 그 본성에 대한 어떠한 전제없이 어떤 사람의 머리 속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할 때 쓰이는 유용한 장치이다. 퍼트남에 따르면, 순수의도란 순수한 정신 상태 속에 있는 훗설의 괄호화된 의미의 의도이다.<sup>7)</sup> 순수한 정신 상태는 오로지 정신 속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비순수한 정신 상태는 정신 속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체 밖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도 관계되어 있다. 달리 말해, 괄호화된 순수 정신 상태는 실제적인 경험적 유입물들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비순수 정신 상태는 실제적인 경험적 유입물들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퍼트남에 따르면, 순수정신 상태의 의도는 경험적 유입물들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순수 의도는 사고의 기호들(표상들)로 하여금 외부적 대상들을 지시하도록 야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순수의도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지시능력을 단순히 전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러한 전제가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비순수의도를 통해 지시를 설명하는 것은 순환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왜 퍼트남이 순수의도는 정신 표상들로 하여금 외부적 사물들을 지시하도록 야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지 살펴보자. 순수 정신 상태에서는 실제적인 경험적 유입물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된 개념들이 형성될 수 없고 단지 외부적 대상들과 어떠한 인과적 상호작용도 없이 발생된 심상들, 느낌들 혹은 보다 추상적인 정신적 사건들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순수정신상태 속의 정신적 표상들은 경험적 유입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내부적 충동에 의해 촉발되어진 (혹은, 통속의 두뇌들의 경우에는 사악한 과학자에 의해 야기된) 사고의 내적 표현에 불과하다. 순수한 정신 상태 속의 사고 기호들(표상들)은 경험적 유입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적인 내적 충동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그 사고 기호들은 의미론적 개념부여를 달리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혹은 실제 대상과는 관계없이 전혀 임의적인 의미론적 해석만을 갖는 단순한

주 7) 과연 훗설의 괄호화된 지향성이 퍼트남의 순수의도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훗설의 지향성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퍼트남의 순수의도와 비순수의도의 구별은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듯 하다.

사고의 구문론적 내적 표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만일 순수정신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매트 위의 고양이’를 생각하였다면, ‘매트 위의 고양이’라는 어귀는 그에게는 그것의 의미가 모든 의미론적 재해석에 의해 변하는 혹은 실제적 대상인 고양이나 매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히 임의적인 의미론적 해석만을 갖는 구문 ‘A\* B’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사고기호들은 어떠한 의미론적 개입도 없거나 혹은 오로지 임의적인 의미론적 해석만을 갖는 구문론적인 발생들이다. 어떠한 의미론적 개입도 없거나 오로지 임의적인 의미론적 해석만을 갖는 구문은 실제 세계의 지시대상들을 고정시킬 수가 없으므로, 순수정신 표상들은 외부적 사물들을 본유적으로 지시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결국 순수정신 상태의 의도는 실제 세계의 지시대상을 고정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사고 기호들로 하여금 외부적 대상들을 지시하도록 야기하는 본유적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에 반해, 경험적 유입물들의 개입을 통해 얻어지는 비순수의도는 사고기호들로 하여금 외부적 대상들을 지시하도록 야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시를 비순수의도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순환적이므로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비순수의도(즉 지시)가 가능한가?’하는 질문을 물음으로써 다시 시작하여야만 한다.

#### IV. 답음 지시이론과 인과적 고리지시이론

답음이론과 인과적 고리이론에 대한 퍼트남의 태도는 다소 미묘하다. 퍼트남은 답음이나 인과적 고리 그 자체의 기능과 정신 독립적인 본유성(즉 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자에 의해 지지되는 답음이론이나 인과적 고리이론을 구별한다. 퍼트남의 결론은 “답음이나 인과고리 자체가 지시어 있어 어떤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답음도 인과적 고리도 지시의 유일한 혹은 기본적인 기능이 될 수 없다”<sup>8)</sup>는 것이다. 달리 말해, 답음이나 인과고리의 기능만으로는 지시의 전 과정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답음이나 인과적 고리가 내적 관점이나 외적 관점에서 조망될 때에만 그것은 자격을 갖춘 지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답음이나 인과적 고리의 기능이 형이상학적 실재론의 외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정신 독립적인 본유성을 받아들이는 외재적 이론이 된다면, 그 답음이론이나 인과고리이론은 틀린 이론이 된다. 우선 왜 답음만으로는 지시가 완전히 성립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자.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닮았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두 대상들간의 답음의 수효는 오로지 독창성과 시간에 의해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답음이 문제되는지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A와 B는 닮았는가’를 묻는 것은 단순히 공허한 질문을 묻는 것일 뿐이다. 만일 닮은 점이 어떤 점인가 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그 질문은 공허한 질문이 되지 않는 것이나,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점에서의 답음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닮은 점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

주8) *Reason, Truth and History*, p.66.

명없이 닳음만으로는 지시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 내재적 실재론이 주장하듯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그 닳은 점이 고정되는가 혹은 형이상학적 실재론이 주장하듯 그 닳은 점이 물자체로부터 정신독립적으로 본유적으로 주어질 때에만 닳음은 자격을 갖춘 지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퍼트남은 동일한 논변을 인과고리 이론에도 적용시킨다. 어떤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닳았듯이, 어떤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과고리를 선택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인과고리가 지시의 문제를 설명해 주는 적절한 인과고리로 선택되었는가 하는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결국 닳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과고리의 경우도, 내재적 실재론이 주장하듯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그 인과고리가 고정되는가 혹은 형이상학적 실재론이 주장하듯 그 인과고리가 물자체로부터 정신독립적으로 본유적으로 주어질 때에만 인과고리는 자격을 갖춘 지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왜 퍼트남이 형이상학적 실재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닳음이론 혹은 인과고리이론을 잘못된 지시이론이라고 주장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어떤 구체적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형상을 지각할 수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처럼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은 정신은 속성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본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탁자를 볼 때 우리는 그 특정한 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뿐만 아니라 탁자임 그 자체도 역시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은 우리가 주의만 기울인다면, 우리의 정신은 어떤 닳은 점이 혹은 어떤 인과고리가 적절한 것인지를 본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주의를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 준다고 한다. 퍼트남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실재론자의 입장을 마술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속성 그 자체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sup>9)</sup>고 주장한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과고리이론에 대한 퍼트남의 비판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가 속성의 예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 그 자체와 상호작용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인과고리를 적절한 인과고리로 선택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과고리에 의존하는 경험적 연합의 기능은 완전하지 않아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퍼트남은 우리가 주변에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나의 앞에 말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그러나 퍼트남의 이와 같은 예들은 형이상학적 인과고리이론을 논박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도 감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감각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의 예만이 형이상학적 인과고리이론에 대한 반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텔레비전 안테나를 전에 본적이 없는 사람이 텔레비전 안테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어떠한 감각적인 오류도 없이 그것을 관찰한 후 그는 그 안테나를 태양빛으로 빨래를 말리는데 사

주 9) 같은 책 p. 69.

용하는 빨래질이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우연히도 그 안테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잘못된 인과고리를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예는 대상에 대한 주의가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대상 자체를 파악 가능케하여 준다는 전제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퍼트남은 형이상학적 실재론자의 마술적 인과고리 지시이론은 지지될 수 없고, 내재적 실재론을 받아들임으로써만이 인과고리나 닳음이 비로소 지시에 있어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두 전제조건들을 만족함이 없이는 외부적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불가능한가?”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검토하였다. 퍼트남은 경험적 유입물을 얻기 위한 대상과의 인과적 상호작용이 필요조건임을 현상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순수의도이론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우리의 개념화 행위가 또 다른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에 의해 옹호되는 닳음이론과 인과고리이론을 공격함으로써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제 “그 두 전제조건들이 외부대상들을 지시하기 위한 충분조건인가?”하는 또다른 기본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만일 우리가 이 두 전제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항상 대상들을 지시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지시자가 지시대상과 직접적인 인과적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고 오로지 간접적인 인과적 상호작용만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고찰하여 보자.

## V. 퍼트남의 내재적 지시이론 II

직접적인 인과적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는 다소 그 답이 명백한 듯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개념적 틀하에서만 외부적 대상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대상은 정신에 독립한 물자체로서의 대상(object-in-itself)이 아니라 경험적 유입물과 그의 개념적 틀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현상으로서의 대상(object-for-him)이다. 따라서 그가 사고기호나 단어를 가지고 대상을 지시한다면, 그 사고기호나 단어는 정신 독립적인 대상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의존적인 현상적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사고기호나 단어의 지시대상이 개념적 틀 하에서 상호작용을 한 대상이므로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지시에 성공할 수 있음은 자명한 듯하다.

그러면 간접적인 인과적 상호작용만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간접적 상호작용의 예로는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외계인을 지시한다든가, 우리가 ‘말’이나 ‘토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전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미래에 태어날 말이나 토끼들까지도 지시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다. 퍼트남은 간접적 인과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두 전제조건들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항상 대상들을 지시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다. 그는 ‘간접적 상호작용의 경우 어떻게 지시가 가능한가?’하는 문제 자체가 가짜-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토끼’의 외연은 토끼들의 집합이고 ‘외계인’의 외연은 외계인들의 집합이다. … 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항진명제들 이외에는 거의 할 얘기가 없다.”<sup>10)</sup>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토끼들과 외계인들은 그것 자체로서 자신의 신분을

주 10) 같은 책 p.52.

드러내는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념적 틀하에서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간접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도 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퍼트남의 견해를 더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간접적 경우에 대한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의 대답을 살펴보자. “우리는 비록 어떤 외계인들과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구인들과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동일한 행성으로부터가 아닌’이라는 관계의 예와 ‘지능이 있는 존재’라는 속성의 예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외계인들을 지시할 수 있다. 우리는 외계인을 ‘지구인들과 동일한 행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지능있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초적인 용어들을 결합하여 우리는 우리와 진정한 연결이 없는 혹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물들의 종류를 지시하는 기술어귀적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토끼들 까지도 지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토끼들이 우리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 토끼들과 동일한 종류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퍼트남은 이러한 종류의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의 설명(인과고리와 닭음 자체의 기능)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불충분한 혹은 보다 강하게 표현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퍼트남은 인과고리와 닭음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내재적 실재론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내재적 실재론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시자와 지시대상간에 인과적 상호작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만족되는 한, 인과고리, 닭음 혹은 다른 적절한 기능들 중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이 인과적 상호작용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 퍼트남은 상관하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어떠한 기능이 인과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명시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어떤 인과고리가 적절한 것인가 혹은 어떤 점에서 그들이 동일한 종류인가 하는 문제는 인과고리와 닭음 그 자체의 기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지구인으로부터 외계인으로의 적절한 인과고리를 선택하여 기술어귀적 표현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한 토끼와 상호작용하지 않은 토끼간의 동일한 점을 선택할 때에만, 우리는 외계인들과 상호작용하지 않은 토끼들을 지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인과고리나 닭음의 기능들이 정신 독립적인 본유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자의 주장과 결합되면, 그들은 잘못된 이론이 된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자들은 우리가 토끼 자체들과 상호작용을 하므로, 우리는 본유적으로 토끼성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세계는 그것 자체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정신 독립적인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상호작용한 토끼와 상호작용 안한 토끼들 간의 동일한 점 그 자체를 본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토끼들의 일부와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의 단어 ‘토끼’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한 토끼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동일한 종류인 상호작용 안한 토끼들 까지도 포괄한다. 비록 퍼트남은 대상들이 어떤 의미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을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는 대상들이 정신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은 부인한다. 그에 따르면 대상이란 우리의 개념적 틀 하에서 정신 의존

주 11) 같은 책 pp. 52-53.



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 만일 대상이 정신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면, 대상들을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사유자가 아니라 세계이다. 왜 퍼트남이 그것 자체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정신 독립적인 대상들의 존재를 비판하는 지를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오는 동굴의 우화를 도입함으로써 해명해 보자.

나는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를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변형하겠다: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죄수들은 그들이 태어난 이래로 그들의 목과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있어 동굴 입구의 맞은 편 벽을 향한 채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동굴 입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실제 사물들의 햇빛이나 달빛에 의해 비춰진 그림자 밖에 볼 수 없다. 목과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동굴 속의 죄수들은 신적 관점을 갖지 못하고 개념적 틀의 특정한 관점들 즉 어떤 제한된 인식능력만을 가진 인간에 비유될 수 있다. 햇빛이나 달빛에 의해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물자체 사물들(즉, 동굴 입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사물들)로부터의 경험적 유입물과 우리의 개념적 틀들(즉 쇠사슬로 인한 제한된 관점들)로부터 형성된 현상에 비유될 수 있다. 이제 원기둥이 그 밑면을 죄수들의 앞에 있는 벽을 향한 채 동굴 입구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잠시 후 원기둥이 지나간 것까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공이 움직였다고 상상해 보자. 죄수들은 빛에 의해 비춰진 그림자들 밖에 보지 못하므로 그 죄수들은 동일한 것이 움직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우기 만일 원기둥이 본성상 그 밑면이 벽을 향한 채 항상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면, 원기둥과 공의 물자체적 차이를 파악한다는 것은 죄수들의 인식능력을 영원히 넘어서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인식적 제약을 가지고 태어나고, 물자체의 사물들은 그와 같이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원기둥과 공은 원기둥 자체 그리고 공 자체로서 정신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적 틀 하에서 정신 의존적으로 오로지 둥근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대상일 뿐일 것이다. 퍼트남은 대상들을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세계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유자라고 단언한다.

이제 왜 ‘간접적인 인과적 상호작용만을 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지시가 가능한가?’하는 문제가 거짓 문제이며 단순한 항진 명제를 통해서 대답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플라톤의 동굴 우화는 우리의 제한된 인식적 능력 때문에 우리는 물자체는 파악할 수 없고 오로지 현상들만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죄수들이 원기둥과 공의 그림자를 ‘둥근것’이란 어귀를 사용하여 부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둥근 것’이란 어귀를 가지고 죄수들은 상호작용한 원기둥, 공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념적 틀 하에서 동일한 종류로 분류되는 상호작용을 안한 모든 것들도(즉 상호작용 안한 원기둥, 공 그리고 접시 등)도 지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기둥, 공 그리고 접시들 간의 물자체적 차이에 대한 파악은 그들의 인식능력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둥근 것’의 외연이 죄수들의 개념적 틀에 따라 결정되므로, 죄수들은 상호작용을 한 사물들 뿐만 아니라 ‘둥근 것’의 외연에 속한 다른 모든 것들을 지시할 수 있다. 우화속의 나오는 죄수들의 경우를 우리들의 실제 경우에 적용하면, 우리가 ‘토끼’ 혹은 ‘외계인’의 외연을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결정하므로 또 우리는 정신 독립적인 토끼 자체 혹은 외계인 자체가 아니라 정신 의존적인 현상적 토끼 혹은 현상적 외계인을 지시하므로 우리는 상호작용을 한 대상들 뿐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안한 대상들도 본유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만일 우리가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을 우리들의 개념적 틀에 따라 개념화한다면, 대상들을 종류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이므로 우리는 본유적으로 상호작용을 한 대상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안한 대상들 까지도 지시할 수 있다. 퍼트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대상들’이 발견되는 것 만큼 만들어진다면 즉 경험의 ‘객관적’ 요소의 산물인 만큼 우리의 개념적 창작의 산물이라면 물론 대상들은 본유적으로 어떤 종류에 속하게 된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죄수들이 ‘등근 것’이란 어귀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접시를 지시할 수 있다면, 왜 쌍둥이 지구에 사는 유사 인간(Doppelgänger)은 ‘물’이라는 단어로써 물(H<sub>2</sub>O)을 지시할 수 없을까? 유사 인간은 물(H<sub>2</sub>O)과 상호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물(H<sub>2</sub>O)과 표면적으로 닮았으나 그 구성 요소가 다른 ‘물’(XYZ)과 상호작용하였으므로, 그는 물(H<sub>2</sub>O)을 지시할 수 없다. 죄수들의 경우와 유사 인간의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죄수들은 원기둥, 공 그리고 접시사이의 물자체적 차이를 영구히 구별해 낼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인식적 한계이다. 그렇지만 과학의 발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물(H<sub>2</sub>O)로부터 쌍둥이 지구의 ‘물’(XYZ)을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조건들이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개념적 틀 내에서 물과 ‘물’간의 차이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조건들의 이상화(idealization)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물(H<sub>2</sub>O)과 ‘물’(XYZ)은 우리의 개념적 틀 내에서 동일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기둥, 공 그리고 접시는 죄수들의 개념적 틀 내에서 동일한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죄수들은 ‘등근 것’이라는 어귀로써 원기둥, 공 그리고 접시 등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지만, 물과 ‘물’은 유사인간의 개념적 틀 하에서 동일한 종류의 것이 아니므로 유사인간은 ‘물’이라는 단어로써 물(H<sub>2</sub>O)을 지시할 수 없다.

## Ⅶ. 퍼트남의 진리론

퍼트남은 “내재적 견해에서의 ‘진리’는 정신 독립적인 혹은 논의 독립적인 ‘사태’와의 대응이 아니라 (이상화된) 합리적 수용가능성-우리의 믿음들 사이의 그리고 우리의 믿음 체계 속에 표상된 경험과 우리의 믿음들 간의 어떤 종류의 이상적 정합성이다.”<sup>13)</sup>라고 말한다.

퍼트남이 진리대응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개념들과 가상된 물자체 대상들 간에 대응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자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접근 불가능성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많은 그들 간의 대응들 중 적절한 대응을 골라내어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그를 그의 내재적 지식이론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에로 이끌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퍼트남은 물자체 대상으로부터의 경험적 유입물을 지시의 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개념과 가상된 물자체 대상들 간의 어떤 대응들이 존재함을 부정

주 12) 같은 책 p.54.

13) 같은 책 pp.49-50.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개념화되지 않은 경험적 유입물의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으므로 그들 사이의 진정한 대응은 결정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험은 정신 독립적인 대상 자체들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적 틀에 따라 우리의 개념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 의존적인 대상들에 대한 경험이므로 우리의 개념과 대상 양자 모두 우리들에 대해 내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관계를 정합적 혹은 부정합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퍼트남은 진리는 단순히 정합성이나 합리적 수용가능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정당화는 바뀔 수 있는 진술의 속성이나, 진리는 바뀔 수 없는 진술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트남에 따르면 진리란 이상적인 정합성 혹은 이상화된 합리적 수용 가능성 즉 인식적으로 이상적 상태하에서의 정합성 혹은 합리적 수용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인식적으로 이상적 상태에 진정으로 도달할 수 없고 또 그런 상태에 충분히 가까이 왔는지에 대해서 조차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물자체 대상들에게 접근 가능케 하여주는 신적 관점이 우리에게 결코 주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퍼트남에 있어 진리란 우리의 개념들과 가상적인 물자체 대상들 간의 대응일 수 없고 단순히 우리의 이론적 믿음들 상호간에 혹은 이론적 믿음과 경험적 믿음 사이의 이상적 정합성-이상화된 합리적 수용가능성일 따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은 칸트의 선험적 철학의 현대판이다. 칸트가 물자체 세계의 접근 불가능성을 전제하였듯이, 퍼트남도 신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